

“현대성우메탈, 강제전환배치·노조파괴 중단하라”

20일 대전충북지부, 2018 투쟁 승리 총파업 상경투쟁 ... “경고는 오늘까지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7월 20일 2018년 임·단투 승리 총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현대성우메탈 자본이 자행하는 노조파괴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7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현대성우메탈 강제전환배치 중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상경한 지부 조합원들은 현대성우메탈이 노조파괴를 위해 자행한 강제전환배치와 외주화를 성토했고,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경고의 의미를 담아 현대성우메탈 본사 건물에 달걀을 던졌다. 현대성우메탈은 지부의 상경 투쟁 소식을 듣고 건물의 모든 셔터를 내리고 직원들을 퇴근시켰다.

현대성우메탈 자본은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지회를 없애기 위해 지회 전임자를 부당하게 징계하고,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했다. 조합원들이 강제전환배치에 항의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된다’라며 노골적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

사측은 강제전환배치를 거부한 노조 간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임금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성우메탈 자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결의대회



를 시작하며 “현대성우메탈은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환배치를 명령한다. 이런 강제전환배치는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경고는 오늘까지다. 경고는 끝났다. 현대성우메탈이 노조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대전충북지부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사에 나선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성우메탈 조합원 뒤에 대전충북지부 3천 조합원이 있고, 그 뒤에 18만 금속노조가 있다. 금속노조는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김희수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이 무대에 올라 연대해준 지부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며 인사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지난 5월 본사 상경 투쟁 후 회사는 대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면담 30분 전에 ‘지회를 믿을 수 없어 대화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폭로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회사는 노조의 투쟁을 일단 모면하고자 지회를 능멸했다”라고 분개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현대성우메탈에 민주노조 깃발이 휘날릴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지부 조합원들은 본사 경영진들에게 달걀을 던져 민주노조 사구 투쟁을 경고한 후 금속노조기를 힘차게 부르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현대성우메탈 자본은 외주화를 시도하며 고용을 위협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지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현대성우메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4월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자본은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엄청난 불이익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며 노조를 흔들었다. 올해 초부터는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하고 현장 반장과 가족까지 동원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지난 3월 26일 현대성우메탈 공장 앞에서 투쟁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성우메탈지회 사수 지부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지부는 지난 5월 30일 상경해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제전환배치 분쇄, 장시간 노동 개선, 외주화 저지, 노조파괴 분쇄 투쟁’을 일곱 시간이나 전개했다.

물량 배돌린 뒤 정리해고·위장폐업 노조파괴 여전

20일, 서울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신영프्रेस전, 성진씨에스 원청사 LG·코오롱 책임 묻겠다”

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가 위장 폐업과 정리해고를 벌인 성진씨에스와 신영프्रेस전에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원래 대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7월 20일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영프्रेस전 본사 앞에서 ‘2018 서울지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영프्रेस전은 노동자 78명을 일방 정리해고 했다. 이 중 53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신영 자본이 건물을 늘릴 때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한 번도 회사가 잘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구조조정을 하면 조합원들이 저항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신영 자본은 기어이 강행했다. 이제 서울지부와 금속노조가 함께 싸워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이희태 서울남부지역지회 신영프्रेस전분회장은 “신영의 정리해고는 현장에 정규직이 일하는 게 싫다는 뜻이다. 부르기 쉽고 자르기 쉬운 단기 알바로 공장을 돌리겠다는 속셈이



다”라고 폭로했다. 이희태 분회장은 “신영은 LG가 물량을 줄여 어렵다고 한다. LG가 정말 하청업체의 괴를 뺀고 협력사를 망하게 하는지 답변을 들어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태 분회장은 “신영 자본은 정리해고한 뒤 지원부서를 전환배치 해 작업을 돌리고 있다”라며 “일감이 없고 경영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해놓고 공장을 돌리고 있다. 시축의 부당 노동행위를 증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영프्रेस전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이익과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 폐업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영희 서울남부지역지회 성진씨에스분회장은 “성진도 원청이 물량을 주지 않는다며 폐업했다. 자본이 노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탄압

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업해 버렸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결의대회 연단에 서울지부 경기 북부지역지회 경인냉열분회, 자동차판매 연대지회, SK엔카지회,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분회 대표들이 나와 신영 프레스전과 성진씨에스분회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코오롱글로벌 본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벌였다. 코오롱글로벌은 성진씨에스가 생산하는 자동차 시트 봉제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코오롱 자본이 하청업체 노조파괴를 위해 성진씨에스를 기획 폐업 시켰다고 지적했다.

서다윗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코오롱 자본은 노동조합을 혐오로 유명하다. 노조가 생긴 하청업체를 쓸어버리려는 기획 폐업으로 성진씨에스가 문을 닫았다”라며 “코오롱 글로벌이 성진씨에스 폐업의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조합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한다

21일, 민주노총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노조, ‘불법파견 현행법 정몽구 구속’ 촉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하청 다단계 철폐 황포 근절 ▲원청 사용자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에 나섰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저임

금 등 모든 문제의 본질은 재벌이다. 정몽구 구속은 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는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에 관한 법과 제도를 쟁취할 것이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 성사로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가이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아시히비정규직지회, KEC지회 등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현대가차 불법 갑질 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가차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불법파견 현행법 정몽구 구속’을 촉구했다.